

#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장음을 이용한 화법 연구

-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

김성환\*

|| 차례 ||

- I. 서론
- II. 한국어 언어적 메시지 전달 수단
- III. 한국어 장음을 이용한 화법 분석
- IV.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장음을 살펴본다. 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을 짚어보면서 특히 장음의 특징에 관해서 살펴본다. 한국어의 장음은 L2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실제 대화에서 의사소통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남녀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화 상황별로 장음을 이용한 화법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L2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의 의사소통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데 실질적인 교육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의사소통, 장음, 상황, 특징, 화법

---

\* 영남대학교 국제학부 강사

## 1. 서론

우리가 외국어를 학습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나라 말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에는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는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명목하에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에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시킨다. 그런데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이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두루 갖춘 것을 의미한다. 엘버트(1971)는 대화할 때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대화를 할 때에 언어적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Albert(1971:43)에 따르면 목소리 38%, 표정 35%, 태도 20%, 메시지가 7%에 해당한다고 한다. 로널드 아들러(2007)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 시각적, 음성적 요소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한다.

실제로 대화 상황에서 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음성적 요소인 음의 길이에 변화를 주는 경우가 있다. (예 1)은 실제로 수업 출석에 관련하여 외국인 학습자가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한 대화를 전사한 것이다.

(예 1)<sup>1)</sup> 학생: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에요.

제가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해요. 그래서 30분

---

1) 전화 대화에 관련한 정보: ㉠일시: 2021. 10. 11. 9시 52분 ㉡대상: 베트남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 ㉢내용: 출석확인

정도 수업을 못 들을 거 같아요.”

교사: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대신에 백신 맞은 확인서를 제출해 주세요.”

학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 “네. 그럼, ㉠ 수고하세요 (:)\*”

학생: “네, 교수님.”

<통화 대기 상태>

교사: “○○○, ㉡ 이만 끊어요.”

학생: “㉢ 네. (전화 종료 소리) 딸깍.”

교사: “(전화 종료 소리)딸깍.”

위에 전화 대화 내용 중에서 교사가 ‘㉠ 수고하세요(:)’로 길게 발화하였다. 이는 다른 대화 구간에 비해서 화자가 유난히 길게 발화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통화하는 상대방에게 통화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다.<sup>2)</sup> 그런데 외국인 학습자는 이러한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통화 종료를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만을 기다린다. 이는 학습자가 교사사에 대한 예의로서 전화를 먼저 끊지 않은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 이만 끊어요’라는 교사의 발언에 ㉢과 같이 학습자가 먼저 전화를 끊는 행위를 본다면 예의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과 같은 장음은 전화상의 대화에서만 종료를 나타내는 의사소통 방법으로써 활용된다.

본고는 이처럼 언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유형인 장음을 이용한 화법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교육적 자료로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sup>3)</sup>

2) 이는 통화를 종료하기 위한 의도된 장음인 것을 화자에게 직접 확인한 것이며 이를 계기로 본 연구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3) 조현용(2005), 김영순·김정은(2006)에서도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시각적, 음성적

이에 본고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각 대화 상황별로 장음을 발화하는 의도 및 목적을 살펴보고 장음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한다. 이는 한국어 의사소통 유형으로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선행 과정으로서 의의가 있다.

## II. 한국어 언어적 메시지 전달 수단

### 1.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 전달 수단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화자는 실제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한다. 그런데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언어적 메시지의 내용 조직 및 구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조현용(2005), 김영순·김정은(2006), 곽수옥(2015)은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에 관한 의사소통 수행 능력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의사소통 수행 능력에 관련한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Ronald Adler(2007)는 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시각적, 음성적, 언어적 요소로 구분하였다.<sup>4)</sup> 먼저, 시각적 요소는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수단으로써 비언어적 행동(nonverbal behavior)

---

요소에 관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4) Ronald B, Adler, 『인간관계와 자기표현』 김민자(역), 한국 심리 상담연구소, (2007), 김영순(1999)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언어적 메시지보다 비언어적 행위가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대화 시에 상대방의 발화된 메시지 내용보다 화자의 표정, 태도, 음성, 어투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이라고 한다.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며 자신감 있는 표정, 몸짓에 의해서 호소력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시각적 요소는 상대방에게 메시지 내용에 관한 신뢰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발화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하기에 곤란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대화가 지나치게 길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대화를 끊거나 직접적인 표현을 대신해서 슬쩍 시계를 쳐다보는 시각적 요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의 대화 도중에 말을 끊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을 덜 수 있다.

다음의 음성적 요소는 발화하는 당사자가 어떻게 의사를 전달하는가와 관련된 된 것으로서 대화 상황에 맞는 목소리 크기, 속도, 음조, 억양, 음의 길이가 있다. 이 중에서 음조, 억양, 음의 길이는 화자의 심리적 감정을 표출하는 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언어적 요소는 문자라는 기호를 인위적 신호 체계인 형식을 통해서 의미를 담고 있다. 문자를 통해서 정보 및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이는 발화하는 당사자의 생각을 표현하는 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문자로 전개하여 전달하는 글이 있다. Ronald Adler(2007)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는 언어 심리학적 측면에서 화자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동시에 심리 및 감정을 표출하는 도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통해서 화자의 심리 및 감정을 읽을 수 있어서 심리 상담 기법에서 널리 사용된다.

한승주(2017)는 비언어 표현을 언어 표현으로부터 독립된 표현과 언어 표현을 매개로 전달하는 표현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시각적 요소인 비언어(nonverbal) 표현으로 자세, 손동작, 몸동작, 얼굴 표정, 눈 맞춤, 옷차림 등이 있다. 후자는 음성적 요소인 반언어(semiverbal) 표현

으로 발음, 길이, 조음, 고저, 어조, 속도, 크기 등이 있다. 홍민표(1998)는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데에 쓰이는 비언어 표현을 비언어 행동으로, 반언어 표현을 주변 언어(paralanguage)로 구분하였다.

본고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유형의 특징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어의 장음을 이용한 화법에 관한 실질적 교육적 자료를 수집하려고 한다.

## 2. 장음을 이용한 메시지 전달 수단

본고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유형 가운데서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장음의 특징을 살펴본다. 장음은 발화된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김선철(2011)은 운율적 요소인 음장(音長)을 생성음운론적 관점에서 단어의 기저형에 개재된 기저 음장, 그리고 장음화 규칙에 의해서 단음이 장음으로 실현되는 표면 음장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어휘적 장음이고 후자는 표현적 장음을 의미한다. 김선철(2011)은 음운론적, 형태적 특성을 토대로 한국어 사전에 수록된 어휘에 대한 장음을 분석하였다. 본고는 이와 차별성을 두고자 실질적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에서 나타난 장음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때 발화된 장음의 의도 및 목적에 따라서 장음의 특징을 정리한다. 본고는 장음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1) 어휘적 장음

한국어에는 동일한 글자로 표기하는 어휘를 음의 길이에 의해서 의미가 구분되는 경우가 있다. (예 2)와 같이 동일한 형태를 가진 어휘이지만 발음할 때 음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이를 어휘적 장

음이라고 하며 여기에 속하는 어휘를 동음이의어라고 칭한다. 동일한 어휘를 글자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자를 통해서 의미를 정의하고 실제 대화 상황에서 발화하는 경우에는 음의 길이를 통해서 의미를 구분한다.

(예 2) 밤(夜)/[밤] : 밤(栗)/[밤:]  
 눈(雪)/[눈] : 눈(目)/[눈:]  
 말(馬)/[말] : 말(言)/[말:]

실제 대화 상황에서는 음의 길이에 주의하면서 발화해야 한다. 이때 음의 길이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발음해야 하므로 화자가 선택하여 발음할 수 없다. 그런데 외국인 학습자는 이러한 음의 길이에 구분 없이 발음하고 그 의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이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음의 길이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 2) 표현적 장음

한국어에는 동일한 어휘가 음의 길이에 의해서 본래의 의미와 상반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발화 시에 나타나는 장음 현상을 표현적 장음이라고 한다.<sup>5)</sup> 이런 표현적 장음은 특히 형용사와 부사에서 나타난다. (예 3)은 실제 대화에서 표현적 장음으로 발화된 사례인데 장음에 의해서 본래 의미와 상반된 의미를 전달한다. 앞서 (예 2)의 어휘적 장음과 달리 기저음이 단음인 어휘를 화자의 의도된 선택적 장음으로 인해서 본래 의미와 상반된 의미를 전달하는 사례이다.

5) 김선철, 「국어 형용사와 부사의 표현적 장음화 - 연세한국어 사전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언어학, 2011, p.52.

- (예 3) ㉠ 어떡해, 정말 잘했어요.  
 ㉡ 어떡해, 정말 잘(:)했어요.

(예 3㉠)은 칭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긍정적인 표현인 것에 반해 (예 3㉡)은 비아냥대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부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예 3㉠, ㉡) 발화를 들었을 때 의미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으나 외국인 학습자는 의미 차이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sup>6)</sup> 대면으로 이뤄지는 대화에서는 화자의 표정, 태도로 의미를 판단할 수 있으나 비대면 대화 상황에서는 화자의 발화된 음의 길이만으로 의미를 파악해야 하므로 외국인 학습자에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실제 대화에서 화자가 대화 상황에 따라서 어휘의 기저음보다 긴 장음으로 발화하는 경우가 있다. 김창섭(1991), 배주채(1996), 김선철(2011)은 표현적 장음이란 기저음이 단음이지만 장음으로 실현되고 화자의 표현적 수단과 감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런데 본고는 기저음이 단음과 장음에 관계없이 기저음보다 길게 발화되는 모든 현상을 장음이라고 본다.

본고는 표현적 장음은 화자의 발화된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구분하려고 한다. 특히 화자의 심리 및 감정을 나타내는 장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대화에서 화자가 발화한 장음의 의도는 화자 본인만이 정확히 알 수 있다.<sup>7)</sup> 본고는 화자가 본인의 심리와 감정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써 (예 4)와 같이 말을 길게 끌게 되는 현상으로 발현된

6) 이는 2021. 10. 11.~12. 양일간 외국인 학습자 58명을 대상으로 대화를 녹음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7) 이에 본고는 실제로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 대화 상황별 장음을 발화한 의도 및 목적을 살펴본다.

것이라고 본다.

(예 4) ㉠ 저기 내가 할 말이 있는데.

㉡ 저기(:) 내가 할 말이 있는데. (:)

(예 4㉠, ㉡)은 동일한 대화이지만 장음을 통해서 의미 해석이 달라진다. (예 4㉠)은 어떤 정보 및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고 (예 4㉡)은 상당히 어려운 부탁 및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예 4㉡)은 화자가 상당히 긴장되고 위축된 심리 및 감정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발화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예 4㉡)는 심리를 나타내는 장음으로써 화자가 평소와는 다른 감정 상태와 발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청자인 상대방의 진중한 경청 태도를 끌어낼 수 있다.

본고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각 대화 상황별로 장음을 발화한 의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정리한다.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중요한 요소로서 언어능력(language competence)에 해당한다. 본고는 한국어 장음을 이용한 화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어교육에 활용하는 실질적 자료를 수집하려고 한다.

### III. 한국어 장음을 이용한 화법 분석

#### 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고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교재 분석과 한국어 모어 화자가 실제 발화한 장음의 특징을 살펴본다. 본고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장음과 한국어 모어 화자가 실제 발화한 장음의 특징을 대조 분석한다.

조현용(2007)은 한국어교육 현장에 사용되는 다섯 가지 교재를 대상으로 하여 비언어적 언어표현의 언어 행위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48가지의 화행 기능으로 분류하였다.<sup>8)</sup> 본고는 이를 (예 5)와 같이 대화 상황별로 공통된 주제로 묶어서 17가지 화행 기능으로 재정리하였다.

(예 5) 대화 상황에 따른 17가지 화행 기능

- ① 가정하기-추측하기-진단하기
- ② 감정(불만, 비판, 후회)표현하기
- ③ 부탁-요청-거절하기 ④ 거짓말하기
- ⑤ 계획-다짐-결심 말하기
- ⑥ 질문·대답하기-문의-허가-확인하기
- ⑦ 사과하기 ⑧ 사실-위치 설명하기-시간 순서말하기
- ⑨ 묘사-경험 말하기 ⑩ 소망하기 ⑪ 약속-예약하기
- ⑫ 요약하기-묘사하기 ⑬ 위로-격려-조언하기
- ⑭ 토론-주장-토의-의견-이유 말하기
- ⑮ 인사-취향-소개-초대하기 ⑯ 추천-제안하기 ⑰ 칭찬하기

본고는 한국어 교재의 17가지 화행 기능을 중심으로 장음으로 표현된 부분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정리한다. 이는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교육 자료를 분석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고는 실제로 한국어교육 현장에 사용되는 (예 6)의 교재를 중심으로 대화문의 듣기 자료를 분석한다. 선정된 교재는 총 6권으로 한국어 수준별로 구분된다.

(예 6) 선정된 교재 정보

- ① 서강 한국어(1-6)말하기/2008,2015/서강대국제문화교육원

8) 조현용, 「한국인 비언어적 행위의 특징과 한국어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2007, p.280.

- ㉠ 서울 한국어(1-6)/서울대학교/2015/서울대언어교육원
- ㉡ 연세 한국어(1-6)/2012/연세대학교
- ㉢ 이화 한국어/(1-4)/2011/이화여자대학교
- ㉣ 재미있는 한국어(1-6)/2010/고려대한국어문화교육센터

본고는 대화문 속의 발화된 표현을 장음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문장 단위의 총발화 시간과 스펙트럼의 0.01초 간격으로 구분되는 개수를 시간으로 산출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물리적인 시간 측정을 위해서 프라트(Praat)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다.<sup>9)</sup> 그리고 장음에 대한 의미 분석은 5명의 한국어 강사의 교차 검증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한다.

다음으로 본고는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장음을 이용한 화법의 특징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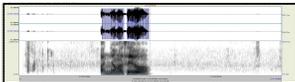
먼저, 한국어 모어 화자 200명(남·여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법을 통해서 대화 상황별 장음을 이용한 화법을 분석한다. 설문지는 ‘Naver Office’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예 5)의 17가지 화행 기능별로 대화문을 구성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한다.<sup>10)</sup>

9) 황지성·이숙향(2012), 김성환(2018)의 프라트(Praat)프로그램 이용 방식을 따라서 문장 단위 총발화 시간과 스펙트럼 간격 시간을 산출하여 대조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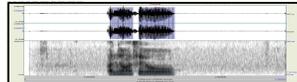
(예) 인사표현: 안녕하세요?

㉠ 총시간: 일반: 2.507494(sec), 장음: 2.600000(sec)

㉡ 스펙트럼 시간: 스펙트럼 간격 개수 × 0.01(sec/기준 시)



〈일반: 안녕하세요?〉



〈장음: 안녕하세요? (: )〉

10) 설문지는 ‘Naver Office’로 제작하여 2021. 4. 1.~12. 20. 전자우편을 통해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예 7) 설문지 질문 유형

㉠ 대화 상황별 장음을 이용한 화법

1. 본인이 실제로 <상황1>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선택하세요.

<상황1> 상대방이 본인에게 금전적으로 무리한 부탁을 하였다. - (○) 길게 소리 내는 발음을 나타내는 기호!

아, 저기 미안해. 힘들 거 같은데.

아, 저기 미안해(○). 힘들 거 같은데(○).

아(○). 저기 미안해(○). 힘들 거 같은데(○).

아(○). 저기(○) 미안해(○). 힘들 거(○) 같은데(○).

기타:

㉡ 장음을 발화한 의도 및 심리적 요인

1. 본인이 실제로 <부탁-거절> 대화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선택하세요.

<상황> 상대방이 본인에게 금전적으로 무리한 부탁을 하였다. - (○) 길게 소리 내는 발음을 나타내는 기호!

**의도 선택**

아, 저기 미안해. 힘들 거 같은데.

아, 저기 미안해(○). 힘들 거 같은데(○).

아(○). 저기 미안해(○). 힘들 거 같은데(○).

아(○). 저기(○) 미안해(○). 힘들 거 같은데(○).

아(○). 저기(○) 미안해(○). 힘들 거(○) 같은데(○).

기타:

1-(가) 본인이 장음으로 발음하는 의도 및 목적을 <보기1-8>에서 선택해 주세요.

- <보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없다면 기타란에 직접 작성해 주세요. (예) 의도 및 목적:

**의도 선택**

1번 선택: 본인이 냉정하고 어려움을 전달하기 위해서

2번 선택: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3번 선택: 본인이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4번 선택: 본인이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해서

5번 선택: 본인이 상대방에게 화와 분노를 전달하기 위해서

6번 선택: 본인이 상대방에게 불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7번 선택: 본인이 상대방에게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타:

1-(나) 본인이 장음으로 발음하는 심리(감정)를 <보기1-7>에서 선택해 주세요.

- <보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없다면 기타란에 직접 작성해 주세요. (예) 심리(감정):

**의도 선택**

1번: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을 거내는 심리(감정)

2번: 상대방에게 평안하게 말을 걸려는 심리(감정)

3번: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에 말을 건네는 심리(감정)

4번: 상대방에게 고마운 마음에 말을 건네는 심리(감정)

5번: 상대방에게 화가 난 마음에 말을 건네는 심리(감정)

6번: 상대방에게 불은 마음으로 말을 건네는 심리(감정)

7번: 상대방에게 기쁜 마음으로 말을 건네는 심리(감정)

기타:

설문지는 상황별로 장음으로 발화한 화법의 특징과 장음을 발화한 화자의 의도와 심리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64명의 한국어 모어 화자의 성별에 따라서 장음으로 발화된 화법의 특징을 분석한다. 동일한 대화 문에서 성별에 따른 장음 현상을 대조 분석하여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본다.<sup>11)</sup>

이처럼 본고는 한국어 교재 분석과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 한국어 장음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화법을 분석한다.

## 2. 결과 분석

본고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교재 분석과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 법과 발화된 대화를 분석하여 한국어 장음을 이용한 화법을 살펴보았다. 17가지 화행 기능별로 장음으로 발화된 대화문의 의미를 분석한 사례를 일부 제시하였다.

(예 8) 한국어 교재 대화문의 장음 분석<sup>12)</sup>

㉠ <약속 변경: 강조, 말투 부드러움>

남성: 우리(:) 내일(:) 만날까요?

여성: 미안하지만(:) 내일은(:) 안 돼요( :)

다른 약속이(:) 있거든요( :)

㉡ <위로 및 조언: 감정 전달>

남성: 회사 일이 많아<sup>ㅅ</sup>(:) 요즘(:) 거의 잠을 못 자<sup>요</sup>( :)

여성: 아무리 일이 많아<sup>도</sup>(:) <sup>ㅅ</sup>(:) 쉬면서 하<sup>요</sup>( :)

㉢ <묘사: 강조, 말투 부드러움>

아들: 옛날<sup>에</sup>(:) 엄마하고 처음 만났던 곳<sup>이</sup>(:)

이 근처라고 하<sup>셨</sup>지<sup>요</sup>? ( :)

11) 200명의 한국어 모어 화자 중에서 장음 녹음 요청에 응한 64명(남:30, 여: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대화문은 설문지와 동일하며 프라트(praat)를 이용하여 녹음 자료를 분석하였다.

12) 『서울대한국어 3A』 p.144 ‘약속 변경’, p.196, 위로 및 조언, 『서울대한국어 3B』, p.122 묘사, p.152 불만

아버지: 이 근처였는데(;) 하(;)도 변해서(;)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

㉔ <불만: 강조, 감정 전달>

남성 고객: 이거(;) 지난주에 맡겼던 양복인데.(;)  
소매에(;) 이상한 얼룩이 생겼어요. (;)

여성 주인: 그래요? (;)  
맡기시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

남성 고객: 네. (;) 산 지 얼마 안 된 옷이예요.

여성 주인: 저희(;) 직원이 실수한 모양이네요. (;)  
제가(;) 확인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

(예 8)의 대화에 나타난 장음을 중심으로 각 의미를 분석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sup>13)</sup>

<표 1> 장음의 의미 분석

대화 상황	장음 발화 의미 분석
㉑ 가정하기-추측하기-진단하기	말투 부드러움, 친근감, 불확실성
㉒ 감정(불만·비판·후회)표현하기	강조, 감정(분노, 화, 짜증)
㉓ 부탁-요청-거절하기,	친근감, 말투 부드러움
㉔ 거짓말하기	말뭉, 긴장, 조조함
㉕ 계획-다짐-결심 말하기	강조, 감정(고민, 망설임)
㉖ 질문-대답하기-문의-허가-확인하기	명확성, 배려, 친절, 친근감
㉗ 사과하기	감정(미안, 용서, 화해)
㉘ 사실-위치-시간-순서말하기	명확성, 친절, 말투 부드러움
㉙ 묘사하기-경험 말하기	명확성, 말투 부드러움
㉚ 소망하기	명확성, 감정(간절, 절실)
㉛ 약속-계약하기	강조, 명확성, 말투 부드러움
㉜ 요약하기-묘사하기	강조, 명확성
㉝ 위로-격려-조언하기,	감정(위로, 격려)
㉞ 토론-주장-토의-의견-이유-근거 말하기	강조, 단호, 감정(비아냥, 저만)
㉟ 인사-취향-소개-초대하기	친절, 말투 부드러움, 배려
㊱ 추천-제안하기	명확성, 말투 부드러움
㊲ 칭찬하기	강조, 감정(감탄, 놀람)

13) 교제별로 듣기 자료를 분석한 후 공통된 특징만을 정리한 것이다. 이때 교제에 따라서 장음의 차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장음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5명의 한국어 강사<sup>14)</sup>의 교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공통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장음은 대화 상황에 따라서 화자가 말하려는 의도를 전달하는 표현적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는 17가지 화행 기능 가운데서 가정하기, 추측하기, 진단하기, 묘사하기, 사실 및 위치 말하기, 시간 및 순서 말하기, 추천 및 제안하기 등은 화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표현적 수단에 해당한다.

둘째, 장음은 대화 상황에 의해서 화자의 심리 및 감정을 발현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불만, 비판, 후회, 부탁, 요청, 거절, 거짓말하기 등 심리 및 감정에 관한 대화 상황에서 화자가 어떠한 심리 및 감정 상태 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셋째, 대화문의 장음은 화자와 청자 간에 친밀도와 화자의 발화 태도를 보여준다. 장음을 통해서 친근감을 표현하고 말투의 부드러움 전할 수 있다.<sup>15)</sup>

다음은 한국어 모어 화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15가지 화행에 관한 설문지 범을 통해서 얻은 결과이다.<sup>16)</sup> 우선, 성별에 따라서 설문지에 응답한 장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동일한 대화문에서 장음이 잦은 대화문을 선택하는 양상을 보였다. (예 9)의 ‘약속 시간 정하기’는 여성이 남성보다 장음이

14) 5명의 한국어 강사는 8년~10년의 강의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4명 이상이 동일하게 판단한 의미를 정리하였다.

15) 이는 대화 상황에 의해서 장음의 의도와 목적이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16) 본고는 ‘거짓말하기’, ‘요약-묘사하기’는 대화 상황을 명확하게 구분할 만한 적합한 대화문을 구성이 어려워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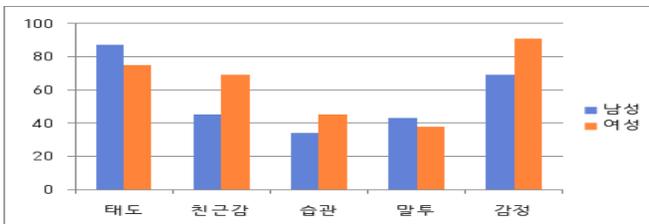
맞은 대화문을 선택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sup>17)</sup>

(예 9) <약속 시간 정하기>의 성별에 따른 장음 양상 대조<sup>18)</sup>

- ㉠ 여성: 난(:) 약속(:) 시간을(:)  
오후 2시로(:) 정하고 싶는데(:).
- ㉡ 남성: 난(:) 약속 시간을 오후 2시로(:) 정하고 싶는데(:).

15가지 화행 기능에 관련한 설문지 결과를 종합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장음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남성은 여성보다 대화문의 시작과 끝나는 부분에 장음이 집중된다. 다음은 (예 9)의 성별에 따른 장음을 발화한 의도 및 목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은 본인이 원하는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고 남성은 약속 시간을 제안하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대화 상황에서 성별에 따라서 장음의 의도와 목적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2>는 15가지 화행 기능별로 한국어 모어 화자가 장음을 발화한 의도 및 목적에 관해서 복수 선택형으로 응답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2> 성별에 따른 의도 및 목적



17) 성별(여성 95명, 남성 77명)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18) 15가지 화행 기능별 질문에 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발화 횟수가 높은 양상을 보였다.

15가지 화행 기능별로 장음을 이용한 의도 및 목적을 살펴보면 태도, 친근감, 습관, 말투, 감정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여성은 ‘감정’을 전하는 수단으로, 남성은 대화에 임하는 ‘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sup>19)</sup> 이는 한국어의 장음은 각 대화 상황에 따라서 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다양한 기능이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64명 한국어 모어 화자의 성별에 따라서 장음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장음으로 발화된 표현은 설문지에서 제시된 대화문과 동일한 것이며 한국어 모어 화자가 녹음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sup>20)</sup> <표 3>은 15가지 화행 기능별 대화문에서 발화된 장음의 시간을 측정한 값이다.

<표 3> 화행 기능별 발화 시간 평균값

대화문	㉠ 여성			㉡ 남성		
	T-T	I-T	L-N	T-T	I-T	L-N
㉠ 거절	7.594671초	1.043046초	5회	6.741338초	0.691998초	3회
㉡ 화해	7.594671초	0.670738초	3회	6.741338초	1.078971초	2회
㉢ 약속	11.072018초	1.721002초	5회	8.362653초	1.257492초	3회
㉣ 사실	10.026667초	0.821827초	3회	7.722653초	0.241666초	2회
㉤ 가정	11.754671초	0.457183초	3회	8.554671초	0.679502초	2회
㉥ 불만	8.682653초	1.008638초	3회	5.290680초	0.507969초	2회
㉦ 계획	7.829320초	1.048361초	2회	7.744014초	1.056558초	2회
㉧ 경험	6.080000초	0.499482초	2회	5.717347초	0.902411초	2회
㉨ 소망	7.722653초	1.503065초	3회	7.445351초	1.195010초	3회
㉩ 위로	8.725351초	0.820791초	3회	7.680000초	0.926884초	3회
㉪ 토론	7.125351초	0.619065초	3회	7.018685초	0.753668초	3회
㉫ 인사	4.757347초	0.420274초	3회	4.224014초	0.735885초	2회
㉬ 추천	6.464014초	0.979494초	4회	6.058685초	0.641030초	4회
㉭ 칭찬	5.888005초	0.381584초	3회	5.055986초	0.271858초	2회
㉮ 문의	5.461338초	0.367900초	3회	5.290680초	0.853392초	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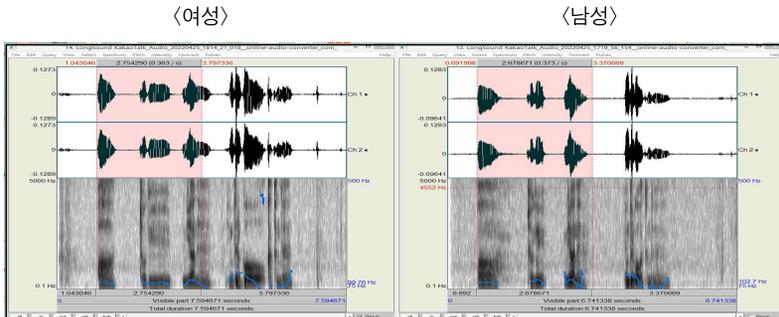
19) 남성의 ‘태도’는 발화 시에 장음을 이용하여 청자에게 공손성을 드러내는 전략적 화법의 일환으로 본다.

20) 설문지에 응답한 결과와 실제 발화 간에 대조하기 위함이다.

여성 34명과 남성 30명이 장음으로 발화된 총시간과 구간별 시간 그리고 장음으로 발화된 횟수의 평균값을 정리하였다. 화행 기능별로 여성과 남성의 발화된 총시간과 구간별 시간의 평균값을 분석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발화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표 3>의 발화된 장음의 횟수를 분석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많은 횟수가 나타났다. 특히 ‘거절-부탁’과 ‘약속-예약’ 대화문에서 발화된 횟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프라트(Praat)를 통한 장음으로 발화된 지점을 분석하면 여성은 특정한 발화 지점이 나타나지 않지만, 남성은 대화문의 시작과 끝나는 지점에 장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설문지의 응답한 결과가 상당히 유사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의 [그림 1]은 성별에 따른 발화 시간의 평균값을 수치로 산출하여 분석한 실례를 제시한 것이다. 15가지 화행의 전체 평균값에 가장 근접한 ‘거절-부탁’의 대화문의 장음을 분석한 실제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림 1] 성별에 따른 스펙트럼 대조

[그림 1]은 스펙트럼과 피치(pitch) 값을 분석하여 발화된 총시간의 평균값을 측정 후 이를 기준 시로 정하여 구간별 장음으로 발화된 시간을 측정하였다.<sup>21)</sup> 발화된 총시간의 평균값을 기준 시로 했을 때

[그림 1]의 붉게 표시된 부분이 1차 구간이고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2차 구간이다. <표 4>는 성별에 따른 구간별로 스펙트럼의 간격을 측정하여 데이터값을 산출한 것이다. ‘부탁-거절’ 대화문을 1차, 2차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발화 시간, 속도, 총발화 시간을 측정하였다.<sup>22)</sup>

<표 4> 성별에 따른 구간별 발화 시간 대조 분석

항목	구간	여성	남성
발화 시간	1차	2.754290sec	2.678671sec
	2차	3.736254sec	3.295191sec
발화 속도	1차	0.363/s	0.373s
	2차	0.268/s	0.303/s
총 발화 시간		7.594671sec	6.741338sec

우선, 성별에 따른 구간별 발화 시간을 살펴보면 여성은 1차 구간이 2.754290초이고, 2차 구간은 3.736254초이다.

남성은 1차 구간이 2.678671초이고 2차 구간은 3.295191초이다. 이는 구간별로 여성이 남성보다 발화 시간이 긴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성별에 따른 발화 속도를 대조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0.01~0.035/s 짧게 나타났다. 발화된 장음 시간의 평균값은 여성이 1.043046초이고 남성은 0.691998초이다.<sup>23)</sup>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발화 속도가 빠르면서 장음을 길게 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펙트럼을 통한 총발

21) 프라트(Praat) 음성분석 시스템상의 산출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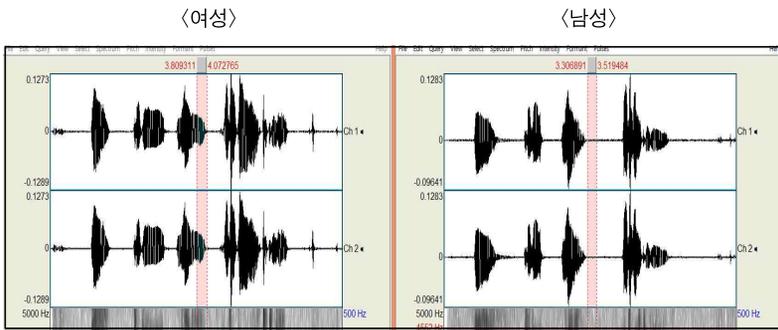
22) ‘거절-부탁’ 대화문 ‘아, 저기 미안해. 힘들 거 같은데’

㉠ 1차 구간: ‘아, 저기 미안해’ ㉡ 2차 구간: ‘힘들 거 같은데’

23) 1차, 2차 구간별 장음으로 발화된 평균값은 ‘1차/2차 구간 스펙트럼 간격 시간\*1/장음 횟수 n’이다.

화 시간을 측정하면 남성이 6.741338초이고 여성이 7.594671초로 여성이 0.853323초가 길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대화문에서 여성이 장음을 더 길게 발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그림 2]는 성별에 따라서 장음으로 발화된 지점을 대조 분석한 실제 자료이다.



[그림 2] 성별에 따른 장음 대조 분석

대화문 1차 구간에서 발화된 장음의 스펙트럼을 분석했을 때 다수의 남녀에게 [그림 2]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sup>24)</sup> [그림 2]의 붉은색 부분은 발화된 장음의 간격을 나타낸다. 성별에 따라서 붉은색 지점을 대조하면 여성은 장음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남성은 장음이 종료되었다. 그리고 장음을 나타내는 스펙트럼의 폭과 간격을 확인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스펙트럼의 폭이 넓고 간격은 좁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장음이 길고 빈번하게 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성별에 따라서 장음으로 발화된 지점을

24) 전체 64명(여성: 34명, 남성: 30명) 중에서 여성 29명과 남성 24명이 <표6>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분석하면 여성은 특정된 지점이 없이 장음 현상이 일어났으나 남성은 스펙트럼의 시작과 종료 지점에 장음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여성이 대화 상황에서 장음을 발화하는 특정 지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남성은 발화가 시작되는 지점과 발화가 끝나는 지점에서 장음으로 발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5)</sup> 본고는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15가지 화행 기능별로 장음으로 발화된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여성은 장음을 통해서 감정을 전하고 남성은 대화에 임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둘째,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장음을 길게 발화하고 발화하는 횟수가 높게 나타난다.

셋째, 남성은 여성보다 발화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장음으로 발화한다.

지금까지 본고는 한국어 교육에서 쓰이는 교재의 장음을 분석하고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장음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두 가지 실험 방법을 통해서 한국어의 장음은 화자의 의도와 심리 및 감정을 전달하는 공통된 특징을 발견하였다. 또한 실제 대화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성별에 따라서 장음을 이용한 화법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본고는 한국어 장음을 이용한 화법의 특징 연구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의사소통 유형의 교육적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서 충분한 연구적 가치와 의의가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

25) 이는 설문지의 응답한 결과와 프라트(praat)의 측정값이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IV. 결론

본고는 의사소통 유형 가운데서 장음을 이용한 화법의 특징을 살펴 보기 위해서 두 가지 실험을 실시하였다. 하나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교재의 듣기 대화문을 분석하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법과 장음으로 발화된 녹음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얻게 된 유의미한 결과를 토대로 본고는 한국어의 장음을 이용한 화법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한국어 장음은 화자의 의도와 심리 및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장음은 대화 상황별로 의도가 구별되고 성별에 따라서 여성은 심리 및 감정을 발현하고 남성은 대화에 임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둘째, 한국어 장음은 성별에 따라서 발화되는 특징이 다르다. 여성은 남성보다 장음을 길게 발화하고 빈번하게 사용한다. 반면에 남성은 여성보다 장음을 짧게 발화하고 대화의 시작과 끝나는 지점에 장음이 집중된다.

이처럼 본고는 한국어의 장음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는 데에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차후에 본고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연구 대상자 수를 늘리고 사회언어학적 변인(연령, 직업, 친밀도, 관계도 등)에 따른 장음의 특징에 관한 후속 연구를 실시한다. 본고에서 다루지 않은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장음을 이용한 화법의 특징에 관한 실질적 교육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곽수옥,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인의 신체언어 이해에 관한 연구:의미 이해 비교와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석사학위 논문, 2015, pp.1-95.

김선철, 「국어 형용사와 부사의 표현적 장음화 - 연세한국어 사전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언어학, 2011, pp.51-69.

김성환, 「전화 대화상의 ‘맞장구’ 사용 양상 연구 -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민족어문학회지』 제81집, 한민족어문학회, 2018, pp.39-59.

김영순, 「다중 문화 교육을 위한 동작 분석 방안」,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1999, pp.131-147.

김영순·김정은, 「신체 특성과 신체 접촉의 기호화용론적 구조」, 『한국언어문화』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pp.209-234.

Ronald B, Adler, 『인간관계와 자기표현』 김인자(역), 한국심리상담연구소, 2007, pp.1-358.

배주채, 『국어음운개설』, 신구문화사, 1996, pp.1-332.

조현용, 「한국어 비언어적 행위 표현과 한국어문화 교육 연구」, 『한국어 교육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5, pp.307-336.

\_\_\_\_\_, 「한국인 비언어적 행위의 특징과 한국어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2007, pp.269-295.

이유인, 「한국어 학습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교육을 위한 한류 드라마 활용 방안」,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석사학위논문, 201, pp.1-99.

한승주, 『의사소통기술 그 이론과 실제』, 청목, 2017, pp.1-403.

Mehrabian, Albert, 『Silent Messages 1st ed』, Belmont, CA Wadsworth Publising Company, 1971, pp.1-152.

Abstract

## A Study on the Speech Method using Korean Long sound for Foreign Learners

- Focus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

Kim, Seong-hwan

This study examines the long sound used as a means to communicate in Korean. The importance of linguistic and nonverbal elements is examined as a means of conveying linguistic messages, and especially the function of long notes is examined. This study summarizes the conversation method using long sounds by conversation situation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using long sounds in realizing communication according to the male and female speakers of Korean native speakers. This is expected to be used as practical educational materials to improve communication performance ability for foreign learners learning Korean as a second language.

**Key Words** : Communication, long sound, situation, characteristics, speech method

김성환

소속 : 영남대학교 국제학부

전자우편 : sseille14@naver.com

이 논문은 2022년 04월 29일 투고되어  
2022년 06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2년 06월 24일 게재 확정됨.